

행19:8-10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 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서 사역하고 있는 리아우의 작은 거인 정규진 선교사입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이 섬기시는 모든 사역과 섬김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행19장 8-10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주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은 언제나 선교현장과 복음 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 방해와 핍박에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울을 통하여 오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이 놀라운 일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18년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복음의 황무지였던 이곳에 홀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대학을 가기 전 방문하였던 S형제가 뻘간바루에 결혼 후 아내와 딸아이와 함께 다시 방문을 하였습니다.

18년전 예배드릴 곳이 없어서 예배드릴 처소를 찾아 밀림으로 함께 차를 타고 움직였던 그 때를 기억하며, S 형제는 18년이 지난 후 이 땅을 회복하시고 당신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며 기쁨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에 다시 예수로 인하여 이 땅 수마트라를 복되게 하실 주님을 인하여 감격하며, 그분을 의지합니다. ^^



18년의 시간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으시고 형제에게, 그리고 저희 선교사부부에게 일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저희 엘사다이 물리아 학교를 세우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수마트라 선교의 대표적인 주자들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



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과 저희 교사들은 믿음의 자리를 지킵니다.

매번 치루어지는 수많은 행사들 속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이시며 예수 외에는 그 어떤 소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반복되는 일상의 삶 속에 예수님 때문에 하루가 시작되어지고, 예수로 인하여 하루 하루가 유지되어지는 은혜를 사랑하는 미래의 예수 일꾼들이 경험되어 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 성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한국교회의 한 집사님의 헌금으로 아이들 운동장을 진흙으로 질척이던 땅에서 세멘트로 포장한 후에 아이들이 더욱 연습을 많이 하고 뛰어 놀더니, 엘사다이 물리아 중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탁월함으로 지난 저희 pekanbaru시내 30여 팀이 나온 중학생들 풋살(미니 축구)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운동에 대한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신들의 미래를 잘 준비해줄 수 있는 공간들이 잘 예비되길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가능성이 다양하게 펼쳐 지는 은혜를 매번 경험하게 됩니다.



배움의 자리에서 늘 세상의 교육과 비교되는 자리에서 주께서 저희 아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더 나은 지혜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자체 도서관이 없어서 시립 도서관에서 가서 자신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

들을 갖고 왔습니다.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엘사다이 물리아 교육재단을 위하여 일본의 센다이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공동체의 헌금으로 지난 3월 전자 도서관을 구입하여 우리 아이들과 교사들이 더욱 많은 과제와 배움의 시간들 갖게 되었습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저희 학교 자체적으로 아이들 교육을 위한 도서관을 건물적으로 잘 준비하여 더욱 많은 영적 지적 준비를 통하여 세상에 경쟁력 있는 학교로 성장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예배와 경건의 훈련은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준비되고 예비되어야 할 영적 은사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강건하여 지는 산소망으로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저희는 지금 지난 일년의 교육을 마치고,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지난주부터 사진과 졸업 사정회를 하고 졸업식과 신입생을 위하여 모든 교사들과 학생들이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이어지는, 더욱 많은 경쟁력과 기대함으로 새로운 학년과 고등학교를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고 정직한 그리고 실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고 함께 새로운 학년을 준비해 갈 수 있는 리더십들이 준비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벌써 4회째 우리 아이들이 저희 학교 졸업생이 되어 갑니다. 안타까운 것은 중학교 건물과 여러가지 재정적인 한계들로 인하여 약 78명이 졸업함에도 모든 아이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이중에 3/1 만을 받아들일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28명만 중학교 신입생으로, 고등학교 신입생들도 동일한 이유들로 모두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머지 약 50명은 또다시 이슬람 공립 학교로 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기도 부탁드린 대로 지난 1월부터 기도하며 고등학교 허가를 위하여 교육청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난 1월에는 저희 중학교 교육 등급이 최고 등급인 A를 받았습니다. 중학교 교육의 질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고등학교를 개교하기 위하여 이미 법이 많이 강화된 상태이고, 건물도 여러 여건이 준비되지 않았기에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영적미래와 이 땅의 부흥을 위하여 반드시 시작해야 하기에 믿음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이미 신청서를 보낸 후이기도 했고, 그 마지막 절차로 교육청 장학관들이 와서 학교를 실사를 온다고 해서 많은 기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답을 듣고 보니 막막 했습니다. 고등학교는 건물과 시설이 먼저 준비되어야 신청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전혀 자격 조건이 안되는데 어떻게 신청할 용기가 생기냐며, 비웃으며 학교를 나갔는데, 그분들을 모시고 다시 간절함으로 저희가 고등학교를 시작해야 하는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눈물로 저희가 이 학교의 상황까지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 다시 기도하며, 부탁하였지만, 그분들은 조건이 안되면, 안된다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또다시 우리 중학교 졸업생들을 세상의 공립 학교로 보내야 하나?

일년을 다시 준비해야 하나 하는 답답함과 막막함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신실하시고 좋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으니 또한 이루실 것이라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교육청 장학관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일단 진행을 위하여 임시 인가를 해주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등학교 인가와 시작을 위하여 필요한 것만 먼저 준비하라고 하여서 바로 준비하고 시작합니다. 기독교 고등학교가 전혀 없는 곳에 새롭게 기독교 고등학교를 시작하게 된다는 놀라운 선포가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 무슬림, 이들

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학교 인가 번호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구분하는 문들과 건물에 대한 구별을 통해서 일단 고등학교 인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일년 안에 고등학교 건물을 세워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저희 아이들이 기독교 고등학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길은 이미 시작되었기에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어떻게 준비해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이미 저희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셔서 그 땅에 또 매일 기도로 심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저보다 앞서 행하십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라 하셔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밀림을 정리하고 눈에 보이게 땅이 준비되어 일을 진행할 것이라는 저의 믿음의 선포가 이렇게 고등학교 인가를 허락하신 것이라 확신하게 됩니다. 늘 신실하게 인도하신 것처럼 또 놀랍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5주 전에 잡초와 큰 나무

들로 가득한 밀림 저희 땅에 약





300백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정리를 시작하였습니다. 약 2800백평의 땅에 중부 수마트라 최고의 기독교 중고등 기숙 학교를 세워 이 땅 수마트라 중부와 인도네시아 전체와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학교를 세울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땅을 기경하고 시작하자 주께서 고등학교 인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기도로 심고, 믿음으로 더욱 선한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 땅을 다지고 메워서 일을 진행해야 할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재정과 사람들을 붙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모든 스태프들과 교사들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기도로 이 땅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8월 지금의 학교가 세워지기 전에도 지금의 모습보다 훨씬 더 아무런 기대를 갖을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던 엄청난 일이 저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저의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모든 기도가 집중되도록 기도해주세요. 이번에 졸업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 땅에 와서 기도를 한 저희 학교의 교장의 믿음과 교사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내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이 전지 전능 하신 분임을 믿고 의지하며 이 땅 수마트라를 바꾸어 가실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땅 수마트라 기독교 교육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이고심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저희는 매주 교사들의 영성 훈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교육을 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이들이 그리스도인 으로서의 거룩함과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로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함께 이 일을 위해서 선교사역을 감당할 후배 동역자 선교사님이 필요합니다. 오셔서 함께 선교사역을 감당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뇌종양으로 뇌수술을 한 교사 부모가 저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일이 저희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께서 저희가 함께 기도할 때 잃어버린 어린양을 믿음으로 고백시키시며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준비시키시는 은혜를 저희 모든 교사들이 알게 하셨습니다.

저희 엘사다이 물리아 학교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많은 동역자님들과 많은 장학생들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의 사랑으로 지난 한 해도 약 1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수업료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포기하려던 학생들을 지원하였습니다.

새로운 회기 기간인 2025년부터 2026년 기간 동안에도 약 100명의 아이들을 지원하고 기도하며 격려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교육하여 꿈과 소망 가운데서 자라가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희 학교가 있는 곳은 빠간바루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들이 저희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며 부모들입니다.

너무나 가난하여 하루 먹고 사는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 학생들이 계속해서 학업을 진행해 가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믿음과 성적도, 성품이나 자세도 좋은데 등록금이 없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못하는 저희 학생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탁월한 리더들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긍휼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공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정규진 선교사는 지난 3월 허리를 다친 후 아직까지 완전하게 회복이 되지 않아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허리 밑으로 움직임이 둔하고 허벅지와 장단지 쪽에 열이 느

꺼져서 피곤하고 무리하면 더욱 몸이 붓는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기에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수술한 무릎 부분이 여전히 자유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은 아직 움직일 수 있고, 계속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건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사역속에 예수님 외에는 어떤 소망도 찾을 수 없는 죄악 된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경험하며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주의 능력으로 더욱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아이들은 매일의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함으로 매일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열악한 재정적인 부분들이 아이들을 더욱 낮고 풍성한 교육 여건으로 안내하지는 못하지만, 늘 믿고 의지하는 것은 이것이 주께서 주신 최고의 것이라 믿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께서 또다시,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셔서 그를 약속의 땅에서 복의 근원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아이들 또한 저희가 믿고 의지하는 대로 확신 가운데 행할 때 이루시고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 또한 저의 것이 아니고 오직 주의 은혜가 있어야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함이 너무나 많은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매일의 기도예 기억해 주셔서 수마트라 선교를 감당하고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잊지 못할 사랑의 빛을 지고 주님 앞에서 저야 할 복음의 무게로 인하여 영광의 기쁨을 갖게 됩니다.

오직 예수로만 감격하는, 존귀한 자리 지키도록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나길 소망하는 땅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리아우에서 작은 거인 정규진 안사라 선교사 드림

2025년 06월 2일

저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세요

1. 고등학교 개교를 위한 새로운 교장과 교사들이 잘 준비되도록 그리고 올해 부터 시작될 온라인 한국어 교육과 영어교육을 위해서 언어 교육실 준비를 위한 컴퓨터가 준비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약 30개의 데스크탑(한 개 약 300\$)이 필요 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2. 신학기 마무리와 준비를 위해서 저희 모든 스태프들과 교사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주실 은혜를 사모하여 함께 비전에 동참하는 저희 공동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 새로운 학년과 학기가 ,그리고 학교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하여 진행되며 막 힘이 없는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 성토에 필요한 재정과 사람 그리고 돕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채워주소서 ...
4. 정규진 안사라 선교사가 더욱 건강하게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